



옥순봉 전망대.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한 옥순봉은 대한민국 제48호 명승지로 제천10경 중 제6경이다. 탁 트인 시야 아래 펼쳐진 청풍호 모습이 절경이다.

제천 | 김재범 기자

푸른 호수·청명한 가을 하늘...한폭의 풍경화

깊고 푸른 호수와 저마다 다른 얼굴의 산들, 거기에 청명한 가을 하늘. 이맘 때 제천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이란 찬사가 참 잘 어울린다.

요즘 많은 명소들이 차로 근처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제천의 청풍호와 옥순봉, 구담봉, 용담폭포 등은 오롯하게 튼튼한 두 다리도 돌아보고 올라가야 제맛이다.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내할 수 있다면 별칭처럼 청량한 가을바람 속 절경을 마음 가득 담아둘 수 있는 고장이 제천이다.

● 살짝 고생스러운 산행 뒤 절경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한 옥순봉은 해발 283m의 낮은 산이다.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봉우리 모습이 빼어나 소금강이라고도 부른다. 채 300m도 안된다고 마음 놓고 산행에 나서면 중반부터 좀 당황하게 된다. 등산 난이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위산이라 중간 중간 암벽 구간이 있다. 등산로 자체도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 편도로 넉넉히 2시간은 잡아야 한다. 특히 정상을 앞둔 10여분은 경사가 제법 되는 바위를 올라야 한다. 최소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등산화는 챙기는 게 좋다.

그래도 고생하며(?) 올라와 내려다보는 청풍호의 전경은 정말 일품이다.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시야 아래 부드럽게 이어지는 호수, 구담봉 등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모습을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다. 정상서 5분 정도 떨어진 전망대에서 보는 풍광이 특히 멋지다.

옥순봉 출렁다리는 호수와 옥순봉을 조망하는 새로운 명소이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222m의 다리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좌우 흔들림은 제법 심한 편이다.

조금 편하게 청풍호 경치를 즐기고 싶다면 청풍호반 케이블카를 이용해도 된다. 물태리에서 비룡산 정상까

옥순봉 정상서 내려다보는 청풍호 전경 일품 조망 뛰어난 222m 출렁다리로 새로운 명소 제천·충주 잇는 고개 '박달재' 불거리 한가득 과거·미래 공존 한방엑스포공원도 필수 코스



3대 약령시중 하나일 정도로 유서깊은 제천 한방산업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 전시관. 제천 | 김재범 기자

지 2.3km를 운행한다.

● 노래 속 그 고개, 박달재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남아~'. 1948년 발표된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의 첫 소절이다. 노래 속 박달재는 제천과 충주를 잇는 고개이다. 과거에는 충주와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나 지금은 드라이브 코스와 자전거여행 루트로 더 사랑을 받고 있다.

박달재 목갈암은 이름 그대로 큰 느티나무 고목 속

에 만든 작은 암자이다. 17년 전 목각을 하는 성각 스님이란 분이 천년 느티나무 고목의 속을 3년이 넘게 다듬어 한 사람이 들어가는 작은 법당을 만들었다. 옆에 오백나한과 삼존불을 모신 또 다른 느티나무 고목도 있다.

박달재 정상에는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래비가 있다. 노래말을 쓴 반야월은 '단장의 미아리고개' 등을 쓴 우리 가요사에 손꼽는 히트메이커였다. 하지만 그는 일제 강점기 여러 군국가요를 부르거나 작사해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노래비 옆에는 이런 친일행적을 밝힌 지역단체의 팻말이 나란히 있어 찾는 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제천 시내에는 비행기가 한번도 정식으로 뜬 적이 없는 비행장이 있다. 고암동의 모산비행장이다. 1950년대 군 비행훈련장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됐다. 지금은 일반에 개방되어 산책과 운동 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1km가 넘는 드넓은 활주로 주변에 보랏빛 버베나 같은 꽃이 만개해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화양연화 Young Forever'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후에는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기도 하다.

● 특별한 전시공간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제천은 조선시대부터 3대 약령시중의 하나로 꼽힌 고장이다. 지금도 전국 약초생산의 30%, 황기유통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제천한방엑스포공원'은 한방 산업에 특화된 제천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10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이곳에서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열린다. 제천 지역 한방바이오기업 생산품을 소개하는 한방바이오융복합관, 제천 한약재와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약령시와 허늘뜨레존, 한방 건강체험 부스 등을 운영한다.

제천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여행

스포츠동아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15



28일 재개장한 '마르 카리베 2.0'. 가을 시즌을 맞아 멕시코의 유명한 축제인 '망자의 날'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다. 사진제공 |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멕시코 테마로 돌아온 해변카페 캐리비안베이 마르카리베 재오픈

가을 축제 '망자의 날' 분위기 완벽 재현

지난 봄 캐리비안 베이의 '부캐'로 인기를 모은 해변 카페 '마르 카리베'가 가을 시즌에 맞춰 돌아왔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은 28일 캐리비안베이의 '마르카리베 더 베이 사이드 카페 2.0'(이하 '마르 카리베 2.0')을 재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스페인어로 카리브 바다를 뜻하는 '마르 카리베'는 캐리비안 베이가 봄부터 운영한 부캐(부캐릭터) 공간이다. 입소문을 타고 오픈런이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재오픈한 '마르 카리베 2.0'의 신규 테마는 멕시코다. 화려한 색감과 문양으로 장식한 대형 해골 등을 통해 멕시코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망자의 날' 분위기를 재현했다. 체험공간도 주무대였던 야외 파도풀(해변카페) 주변 외에 허버마스터(마을)와 어드벤처풀(광장)까지 넓혔다. 이와 함께 파도풀 앞 웨딩존 등 일부 좌석에는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2배 늘어난 식당과 스낵 매장에서는 120여 종의 특선 메뉴를 운영한다. 특히 허버네로 레드블 파스타, 치폴레 비프를 등 멕시코 특선 메뉴를 선보인다. 마르카리베 2.0은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디스커버서울패스' CU편의점서도 구매 가능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서울패스를 전국 1만6000여 개 CU편의점 매장에서 판매한다. 그동안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서울 시내 관광안내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관광재단이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CU편의점 점포로 판매처를 확대하게 됐다. 홈페이지에서는 해외 발행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반면 CU편의점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2016년 7월 출시한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30일(금) 음력: 9월 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끈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자격증·고시 등의 시험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도 차츰 나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를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삼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너무 앞서지 말고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라.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 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승진이나 시험합격이 어려운 날이다. 용미 생을 만나면 해결된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 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먼저 힘을 쌓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꽃을 피우는 날이 될 것이다.	옷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에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오늘의 날씨			30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16 28	17 25	13 28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18 29	15 28	15 29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16 29	15 29	18 27
창원 0/0	제주 0/0	지역	16 28	19 27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1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인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